

순천 별량 들녘 수놓은 ‘논 아트’ 눈길

이색 풍경 연출 8~9월에 절정
학생·주민·기관 200여명 합작
순천시 알리는 홍보 자리매김

순천시 별량면 들녘에 조성된 유색벼 논아트가 자연과 어우러진 이색적인 풍경으로 오가는 이들의 눈길을 사로잡고 있다.

올해 별량 논아트는 지난 5월 지역주민들과 별량초, 별량중 학생, 관내 기관단체 등 2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모내기 체험행사로 시작되었으며, 세대와 계층을 아우르는 공동체 협력을 보여주었다.

약 3개월이 흐른 현재, 키가 자라고 색이 뚜렷해진 유색벼들은 순천시 문화 산업을 알리는 슬로건과 순천시 CI로고를, 다른 한편에는 순천시의 시조인 흑두루미를 바라보는 가족들의 모습이 담겨, 별량면과 순천만의 정겨운 시골 풍경을 선명하게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조성된 논아트는 유색벼 색상이 뚜렷해지는 7~8월에 절정을 이루며, 9~10월에는 가을철 허수아비와 어우러져 또 다른 매력을 선보일 예정이다. 계절에 따라 변화하는 논아트의 모습은 방문객들에게 색다른 볼거리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별량면과 순천시를 널리 알리는 지역 홍보 수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논아트는 매년 5월 모내기 시즌에 시작된다. 모내기 전 순천만에서 가져온 갈대를 30cm 간격으로 쪼갠 뒤 넓은 논에 밀그림을 그린다. 흰색·붉은색·황색 등의 유색벼를 심고, 조록색인 일반벼는 바탕색으로 사용한다. 넓은 공간은 이앙기로 벼를 심지만, 세밀한 작업이나 주요 그림을 그릴 때는 수작업으로 진행된다. 이같은 과정을 마친 논아트



순천시 별량면 들녘 수놓은 ‘논아트’ (순천시의 시조인 흑두루미를 바라보는 가족들 표현).

는 7월이 되면서 그림이 나타나기 시작해 8월까지 선명하게 드러나게 된다.

최명식 별량면 주민자치회장은 “논아트는 지역 경관을 주된 스스로 가꾸고 만들어가는 상징적인 사업”이라며 “앞으로도 이 명맥을 꾸준히 이어가 별량면의 아름다움을 널리 알리겠다”고 말했다.

한편 별량면 논아트는 올해로 8회째를 맞이했다. 별량면 주민자치회는 지난 2018년부터 유색벼를 활용한 농업생태공원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논아트를 추진해 왔으며, 지역 경관 개선과 활력 넘치는 마을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힘쓰고 있다. /순천=김은중 기자 ejkim@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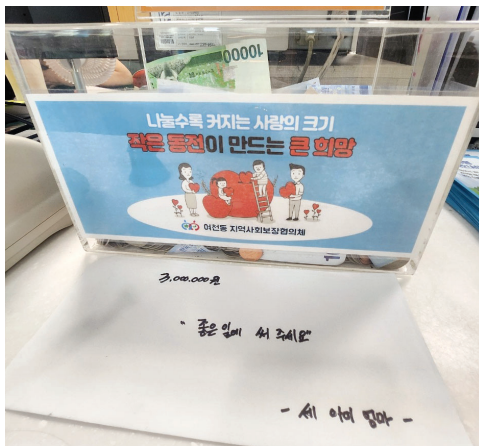
여수 세 자녀 엄마의 ‘숨은 선행’

익명으로 성금 300만원 기탁
“병치레 7살 자녀와 약속 지켜”

여수시 여천동에 거주하는 세 자녀의 엄마 A씨가 어려운 이웃을 위해 써달라며 여천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성금 300만원을 기탁했다. <사진> A씨는 “과거 자신과 자녀가 앓은 병치레로 힘든 시간을 보냈지만, 최근 모두 건강을 회복하면서 병원비 부담이 줄었다”며 “7살 자녀와 함께 ‘아껴진 병원비로 좋은 일을 하자’고 약속해 기부를 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작은 정성이지만 어려운 이웃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누군가의 아픔을 함께 하고 싶고 절망 속에서도 용기를 내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이름은 밝히지 않고 조용히 기부하고 싶다”면서 익명 기탁을 요청했다.

기탁된 성금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여천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전달되며, 복지사각지대 해소와 마을 복지사업에 소중히 사용될 예정이다.



안순금 여천동장은 “그 어느 때보다 힘든 시기에 어린 자녀와 함께 나눔을 실천해 주신 기탁자의 따뜻한 마음에 깊이 감사드립니다”며 “기탁금은 꼭 필요한 이웃을 위해 쓰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기탁은 아이와 함께 나눔을 실천한 의미 있는 사례로, 지역사회에 따뜻한 울림과 귀감이 되고 있다.

/여수=김창화 기자·동부취재본부장 chkim@

보성군, 교육발전특구 시범 지역 최종 선정

연간 최대 30억원 국가지원 받아

보성군이 교육부의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에 최종 선정돼, 연간 최대 30억 원 규모의 국가 지원을 받는다.

이번 지정으로 보성군은 남해안 농수산 융합 인재 육성의 거점이자, 지방 교육혁신을 선도하는 핵심 지역으로 도약할 전망이다.

교육발전특구 시범사업은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 대학, 기업, 공공기관이 협력해 ▲교육혁신 ▲지역 인재 양성 ▲정주 생태계 조성 등을 종합 지원하는 교육부의 핵심 국가균형발전 정책이다.

보성군을 비롯한 고흥·완도·진도 4개 군이 교육부 예비 시범지역 재평가 결과,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으로 최종 선정됐다. 군은 연간 최대 30억

원을 특별교부금과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를 통해 지원받게 된다.

보성군의 교육 발전 전략은 ▲지역이 책임지는 돌봄체계 구축 ▲공교육 환경 개선 ▲지역 상생 글로벌 교육혁신 ▲지역자원 기반 정주 생태계 조성 등 4대 전략 아래 24개 세부 과제로 구성됐다. 이를 통해 지역 특성에 맞춘 교육혁신과 지속 가능한 인재 양성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농·생명 산업 및 미래 인재 육성을 위한 특화 교육을 강화하고, 지자체·교육청·대학·산업체 간 협력체계를 구축해 지역 인재의 정주 기반을 다지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향후 보성군은 교육발전특구 실행계획을 수립해 올해 10월부터 본격적인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보성=김용백 기자 kyb@kwangju.co.kr

광양 매실산업 신활력센터 개장... ‘제2의 전성기’ 시동

70억원 투입 연면적 400㎡ 규모
농촌개발사업 연계 시너지 효과

광양시는 매실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농촌 활력 제고를 위한 ‘광양신활력센터’가 지난 8일 공식 개장했다. <사진>

광양신활력센터는 2019년 2월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에 신청해 같은 해 12월 최종 선정됐다. 이후 2020년부터 2022년까지 기본계획 수립과 시설 설계 등 행정절차를 거쳤으며, 2023년 5월 공사에 착공했다. 2024년 12월 건축공사와 내부 인테리어를 완료한 뒤, 올해 8월 개장식을 열고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

이번 광양시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은 국비 49억원과 시비 21억원, 총 70억원이 투입된 프로젝트다. 사업은 농촌지역의 자산과 다양한 민간 자생조직을 활용해 특화산업을 육성하고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자립적이고 지속 가능한 발전 기반을 구축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연면적 400㎡ 규모로 조성된 광양신활력센터는 1층에 매실 공동판매장, 매실제빵 체험장, 추진단 사무실을 갖췄다. 2층에는 매실아카데미실과 매실와인·디저트 체험장을 마련해 방문객에게 다채로운 체험 기회를 제공한다.

센터는 매실 신산업화, 신문화 창출, 산업 패러다임 전환을 목표로 하며, 광양 매실산업의 ‘제2의

전성기’를 구현하기 위해 농촌개발사업과 연계해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시는 이를 위해 마을공동체, 사회적경제지원조직, 문화도시사업단 등 지역 중간지원조직과 협력하고 액션그룹 역량 강화, 매실산업 활동가 육성을 통해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할 방침이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

온라인 쇼핑몰 ‘고흥몰’ 누적 매출 90억 돌파

2021년 9월부터 올 6월까지 누적

고흥군이 직영하는 농수특산물 온라인 쇼핑몰 ‘고흥몰’ (go-hmall.com)이 2021년 9월부터 2025년 6월까지 누적 매출 90억 원을 기록하며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특히 전체 매출의 96%가 관외 지역에서 발생해, 고흥 농수특산물의 우수성과 인기를 실감했으며, 고흥몰이 농민은 생산에만 전념하고 판매는 행정직 책임지는 가치 실현 모델을 확인할 수 있었다.

고흥군은 전국 지자체 중 드물게 직영 방식으로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다. 군이 생산자 관리부터 상품기획, 홍보, 마케팅, 고객상담까지 전 과정을 직접 주도하는 체계로, 신뢰도 높은 쇼핑몰 운영과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성공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2025년 상반기에는 총 30여 회의 기획전과 특별전이 진행됐다. 가장 높은 매출을 기록한 고흥쌀은 4997건이 판매돼 약 2억 5000만원의 매출을 올렸으며, 이외에도 고흥의 특산품인 거금도 양파는 2만5671건, 2억 2000만원, 고흥 북송이는 1만3910건, 1억 3000만원의 판매량을 기록하며 대폭 상승했다. /고흥=주각중 기자 gjju@kwangju.co.kr

예남향

광주일보 문화예술매거진

2025년 8월호

2025년 7월 31일 발행
구독신청 : 062-220-0550
팩 스 : 062-222-0195

- 문학도시 광주, 허약한 출판의 뿌리
- 'K-출판'은 인기 상승 중, 서울국제도서전 풍경
- 지역 출판의 세계화를 위한 제안

K출판 열기, 광주의 출판은?

특집
K출판 열기, 광주의 출판은?

특집
K출판 열기, 광주의 출판은?

특집
K출판 열기, 광주의 출판은?

남도체널로드

종교 순례와 여름의 낭만 그 길 따라

화제의 공연
전통과 현대 음악의 경계를 흔든다
ACC×Music Festival '엑스뮤지크페스티벌'

문화 화제
여행자의 Zip단Zi성 신춘문에
'광주에서 출발한 나의 여행은 어디쯤 왔을까?'

호남의 누정시조2 ②-담양 식영정
소쇄원·한벽당과 '일동지삼승' 불러
권력·명예 내려놓고 유유자적 자연 속 '은거의 미학'

유럽 소도시 기행④
12세기 성으로 시간여행
벨기에 겐트

우리동네 미술관을 소개합니다⑦
'골프장 옆 미술관' 보성 우종미술관

조인호의 키워드로 읽는 광주 전남 미술사②
고려청자와 조선 분청사기

여행과 함께하는 남도투어 ②
늦보다 아름다운 남도의 밤
별빛따라 한여름 夜한 여행

공간의 재발견⑤
박제된 공간 벗고
현대미술의 메카 되다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